

강석현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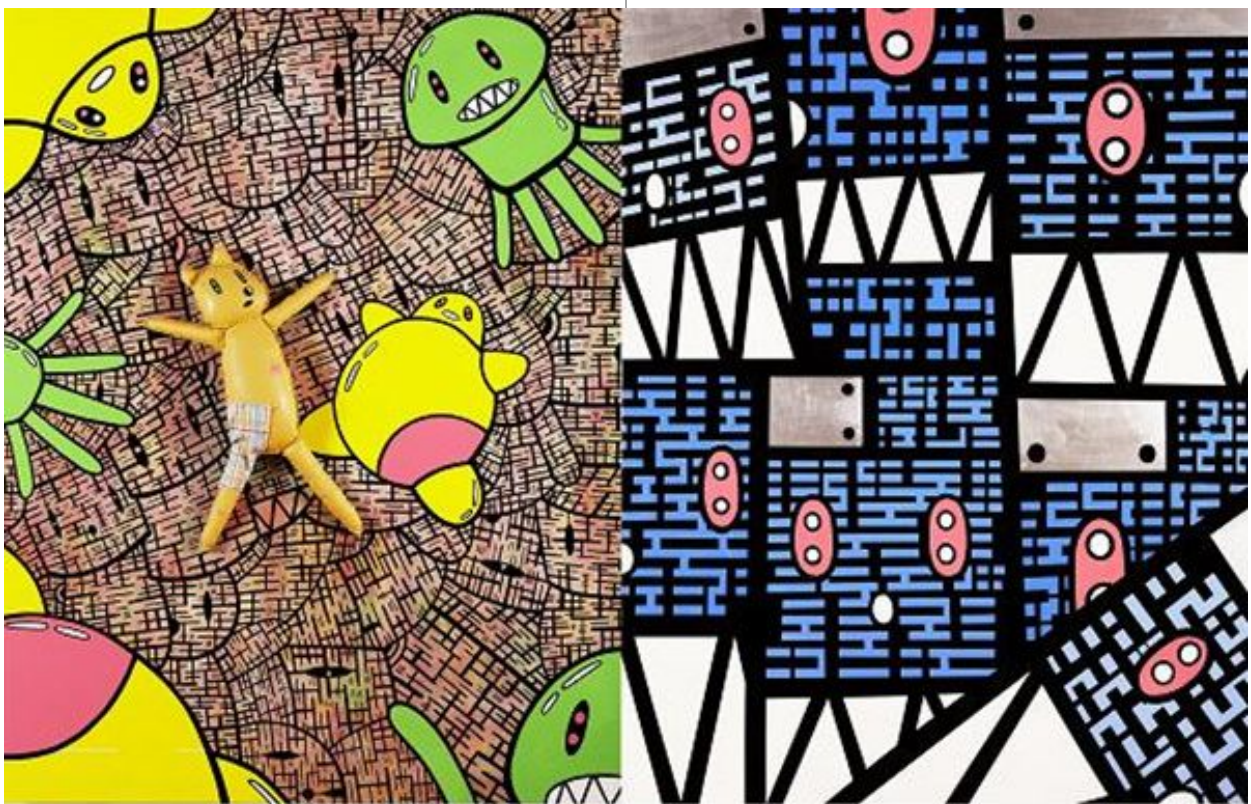
EXHIBITION

2011 / 01 / 11

ART IN CULTURE

STORY TELLER

1. 20 ~ 2. 17 갤러리인(<http://www.galleryihn.com/>)



강석현 <Tension> 캔버스에 혼합재료, 116.8x182cm, 2010

국내에서 첫 개인전을 갖는 강석현 작가는 픽션의 공간인 컷만화 풍의 화면 속에 구조적 한계를 지닌 실제 공간과 기억의 상징물을 병치 시켜 낯선 시공간적 상황을 생성 해낸다. 이는 작가가 기억해낸 유년의 환상 혹은 일련의 사건들을 재구성하며 현실을 완성하고, 궁극적으로 보다 긍정적인 모습을 도출하고자 하는 고민의 과정이다. 작가가 등장시키는 캐릭터들은 개별적으로 존재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이중교배 접합 절단 변질을 일으키며 점점 그 종류와 역할이 늘어나기도 한다. 이는 작가의 기억이 현실과 조응하며 재 기억하는 과정을 나타내며 내적 내러티브와 현실세계의 충돌장면은 작품 곳곳에서 익살스럽게 드러난다. 회화 조각 영상 작업 총 25점 전시.

02)732-4677